

“여수광양만권 성장·박람회 정신구현 방점 찍어야”

정치적 쟁점 끝내고 ‘역량’ 모아라

▶1면에서 계속

여수선언실천위원회(여실위) 등 시민사회도 항만공사가 공공개발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실위 임영찬 공동상임위원장은 “박람회장이 가진 3,658억원의 부채를 여수시가 감당하기에는 역력이 되지 않는다”며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는 공공개발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법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일부 반대 의견으로 인해 흐지부지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항만공사가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견도 해수부 용역을 통해 ‘양호’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주체를 맡되 지역사회가 원하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더는 특별법 개정이 지체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여수광양항만공사도 박람회장 인수에 긍정적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 박성현 사장은 “박람회장을 인수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우리에게 이득이다”면서 “2011년 1조1,000억원이었던 부채를 지난해 3,600억원까지 상환한 상황에서 또 3,700억원의 부채를 떠안고 시작한다는 점에서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사장은 “부채와 박람회재단 31명의 고용승계 문제 해결방안이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며 “특별법이 통과된 후 인수가 되면 부채 상환기간을 20~30년 정도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전남도와 함께 MOU 체결을 통해 수익모형을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항만공사의 박람회장 인수에 대한 반대도 만만찮다.

민주당 김희재 의원(여수·울)은 “항만공사 설립 목적이 관광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데 공사에 맡겨 박람회를 운영해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며 “박람회장을 여수에 맞게 운영해야 하는데 항만공사가 항만 개발과 운영 등 본래

의 사업에 치중하면 박람회장은 우선순위에 밀릴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항만공사를 주체로 정하기보단 우선 박람회 기본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는 용역이 우선이다”며 “박람회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전남도나 여수시가 용역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용역을 먼저 하고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해 주철현 의원실에서 여수시민 1,002명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 여론조사를 진행했지만 ‘여수광양항만공사 매입 운영’은 17.3%에 불과했다”며 “여수시민들의 의견에 맞게 운영주체에 대한 논의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은 반발의 강도가 가장 세다.

서 의원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광양항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노력보다는 수익사업의 하나로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일은 옳지 않다”며 “현재 특별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반법에 속하는 항만공사법에 특정사업(여수엑스포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은 법체계상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항만공사가 1조1,000억원대의 채무를 가지고 시작해 10년 동안 빚만 갚으며 지내 항만에 투자조차 못한 상황이었다. 이 단계에서 또 3,658억원의 빚을 떠안게 된다면 항만공사는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며 “지금 당장 스마트항만개발사업비 6,915억원의 50%를 항만공사가 지불해야 한다. 항만공사 수익금이 1년에 100억원 남짓인데 인수하게 된다면 빚만 산더미처럼 쌓이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광양시의회는 한발 더 나아가 민간개발방식을 주장하며 성명을 발표하는 등 주철현 의원의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맞서 여수YMCA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운영이익을 광양 혼자만 독식하려는 이기적 주장이라며 성토하고 있다. 여수YMCA 관계자는 “2017년 문제

인 대통령 후보 때 공공성을 살려 박람회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약속이 있었다”면서 “박람회장 공공개발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맡아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기재부는 민간매각을 통한 선투자금 회수만 고집하고 있고, 전남도나 여수시는 박람회장 매입 여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박람회정신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해양과학과 해양산업 관련 전문성도 떨어지기에 공공개발 주도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서동용 의원이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법사위는 물론 농해수위원회 한 명 한 명을 만나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정부는 차치하고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방관하고 있는 전남도와 여수시도 문제지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도에 선 지역정치권의 엇갈린 행보가 더 큰 문제다”며 “항만공사에서 떨어지는 수익이 줄어들까 공공개발에 반대하고 있는 광양지역 여론을 수렴

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등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더 큰 정치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항만공사 인수에 반대했던 김희재 의원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수광양항만공사를 통한 공공개발 안이 대선 직후라도 국회를 통과해 박람회장 활성화의 기틀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은 대형 국제행사의 최적지인 만큼 MICE 복합단지 지정, 컨벤션센터 건립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컨벤션센터뿐 아니라 숙박, 쇼핑, 음식 등 국제적 행사에 필요한 시설들을 한 곳에 모아 융복합 클러스트를 만들어 개최되는 행사의 질을 높여겠다는 구상이다. 또 엑스포(2012년), 지방자치박람회(2017년), 세계한상대회(2019년), 도시환경협약정상회의(2021년) 등 대규모 행사 유치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해양컨벤션센터(사업비 575억원) 구축도 주장하고 있다.

이 시장 “붕괴사고 피해자 지원책 마련”

“24시간 수색·구조작업 진행”

광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지원에 나섰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22일 오후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에서 붕괴사고 피해자 지원대책회의를 열고 광주시와 서구청, 현대산업개발에 긴급지원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생업을 제쳐두고 사고 현장에 머물면서 탐색구조작업을 지켜보고 있

는 붕괴 피해자 가족들, 추가 붕괴의 위험으로 대피 생활을 해야 했던 인근 주민들과 상가 상인들, 내 집 마련의 꿈이 와르르 무너져버린 입주예정자들까지 이번 사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에 피해자들이 나눔과 연대의 광주 온기를 느끼면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모든 피해에 대한 최종 보상문제는 사고 수습이 끝나는 대로 현대산업개발이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당장 명절을 앞두고 생계가 막막한 시민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고통받는 이들에게 열과 성을 다하는 것이 광주정신이고 공직자들의 책무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아파트 붕괴사고 수색과 관련해 “24일부터는 소방구조단과 현대산업개발 작업팀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 수색 및 구조작업을 24시간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조기철 기자

전남도, 오미크론 확산세 잡는다

26일부터 자가검사키트 도입

전남도가 오미크론 확산세를 꺾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22개 시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새로운 검사·치료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전남도는 광주시, 경기 광명·안성과 함께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단기간 내 코로나 환자가 급증한 오미크론 우세지역으로

분류돼 정부 방침에 따라 22개 시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새로운 검사·치료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진단검사의 경우 고위험군은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환자에 대해서도 선제적 PCR 검사도 진행한다.

일반 진단검사의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별도 자가검사키트 라인을 마련, 즉시 검사해 양성이면 바로 PCR 검사를 현장에 실시한다.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단 결과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는 도내 8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15개 민간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 항원검사를 시행한다.

먹는 치료제 투약 범위도 요양시설, 요양병원, 감염병 전담요양병원까지 확대한다.

해외유입 확진자 중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이 급증함에 따라 PCR 음성확인서 기준을 검사일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강화하고, 격리면제자 대상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 항원검사 실시, 격리면제 관리 강화 등도 추진한다. /김용현 기자



설 맞이 후원금 기탁

광주병원(대표원장 김대현)은 21일 오전 광주 북구청에서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지역의 돌봄이웃들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을 위해 사랑의 후원금 500만원을 문인 북구청장에게 기탁했다.

/북구 제공

시, 일상회복지원금 첫 주 100만명 지급

광주시는 온·오프라인 지급 신청을 시작한지 첫 주 만에 일상회복지원금 100만명 지급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7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금 지급을 완료하고, 17일부터는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급과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선불형 상품카드 지급을 시작했다.

22일 오후 9시 접수마감 기준 총 102

만 5,363명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는 총 지급대상자(146만 8,493명)의 69.8%에게 지급을 완료한 것이다.

지급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방식 72.3%, 행정복지센터 선불형 상품카드 지급 19.5%, 기초생활수급자 현금 지급 8.2% 순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지원금 지급 개시 첫 주에는 집

수현상이 매우 혼잡했으나, 15개 은행·카드사 참여를 이끌어 온라인 신청률을 높이고 사용자 편의 중심의 현장지급 시스템을 구축해 처리시간을 크게 단축한 결과 큰 혼잡없이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이 이뤄졌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방식 온라인 신청은 2월 18일까지, 선불형 상품카드 행정복지센터 현장방문 신청은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오선우 기자

광주환경공단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2022-9호

광주환경공단 임원(이사장) 모집공고

광주환경공단 임원(이사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공기업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영능력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22년 01월 21일
광주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이 사 장 : 1명
- 임 기 : 임명일로부터 3년
- 응모자격 : 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지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22. 01. 21.(금) ~ 02. 07. (월)
○ 접수기간 : 2022. 01. 27.(목) ~ 02. 07. (월), 토·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단, 우편접수 시는 지원서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등기) 접수
- 접 수 처 : 광주환경공단 경영지원부 총무인사팀(본부 2층)

- 심사방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심사
- 심사방법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 서류심사합격자에 한하여 자기검증기술서(소정양식, 별지5) 제출
- 2차 면접심사
- 면접대상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면접방법
· 응모자의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 계획을 15분 이내 발표 후 질의·응답
- 전문성, 리더십, 경영역성, 노사 및 직원 친화력, 윤리관 등 심사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시행(광주광역시의회에서 실시)
- 최종인용 결정 : 광주광역시장
- ※ 응모자격, 제출서류 등 자세한 공고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및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규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광고·영입·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 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1000@hanmail.net

자치시대 선도를 위한 시민참여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본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n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임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대출,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정확적 면의 법적채권 준수 시간적 효율

▶ 지사오피스 상담 ◀

호남지사 010-2175-4731 / 062-417-4731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NAVER 드림꽃도매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al, 062) 233-9961 Fax, 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